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 11 : 강원도민의 눈물'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9일(목),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1편 : 강원도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강원도민의 눈물’은 김진태 도지사의 레고랜드 금융위기, 산불 골프 논란, 공약 파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 민생 외면과 행정 무능을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도민의 냉정한 평가와 선택을 돕기 위해 발간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김진태 강원도정의 8가지 문제를 경제 위기 초래 및 무책임한 도정, 정치·인사 논란, 비전 부재 등의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 첫째, 경제 위기 초래 및 무책임한 도정은 ‘레고랜드 사태’, 취임 첫날 8개 공약 폐기, 산불 골프 논란 등을 다루었다.
 - 둘째, 정치·인사 논란으로 명태균 개입 공천 의혹, 강원연구원 비리(업추비 부정·특혜 인사), ‘1948년 건국’ 발언으로 행사 파행을 지적했다.
 - 셋째, 비전 부재로 건축재정 명분으로 평창 올림픽 유산 사업 중단, 남북교류 포기, 일자리·SOC 사업 축소를 제시했다.
-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강원편은 지방선거 앞두고 김진태 도정 실적을 검토해 도민이 발전 일꾼을 선택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